

# auribrief.

No. 44

##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차주영 부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 1. 서론

SOC시설은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SOC시설은 도시하부구조 또는 도시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의미하며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시설까지 포함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SOC시설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전국에 걸쳐 도로망과 철도망이 확충되었고, 항만과 철도역, 공항의 건설로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도시는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차 위주의 교통편의성은 확보된 반면, 과도한 개발에 의한 환경의 파괴,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의 붕괴, 보행자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이와 같은 기능성, 경제성 위주의 SOC시설 조성방식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설물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심의제도 도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근본적인 SOC시설의 가

치에 대한 고민 없이 외형적인 장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과 경관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로서, 그리고 사회적 자산으로 SOC시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SOC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삶의 공간으로서 SOC시설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과 더불어 기능성과 경제성 위주로 조성되었던 시설단위의 조성방식에서 공간단위의 SOC시설 디자인에 대한 조성방식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SOC시설의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 ‘좋은 SOC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SOC시설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토목구조물 중 교통기반시설에 해당하는 SOC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교통기반시설은 다른 SOC시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이 높을 뿐 아니라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디자인 향상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 2. 국내 SOC시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동향

국토와 도시의 환경, 특히 경관형성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SOC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약 26조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2조 5천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이중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비중이 다른 SOC시설에 대한 예산비중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OC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비용은 SOC시설이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대변하는 동시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의 질적 개선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SOC시설 디자인 실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SOC시설의 디자인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못한 디자인, 과도한 디자인, 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한 디자인 등이 꼽혔다. 한편 디자인이 가장 많이 향상된 시설로는 공항, 공원 및 녹지, 광장 등의 공간시설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 관련 시설을 비롯한 공간시설의 디자인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 전부터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실시하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수많은 가로정

비사업과 특화가로조성사업 등이 도로관련시설의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공간시설의 디자인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전문가들의 요구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편 21세기 이후 일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지난 20세기 개발과 성장위주의 양적 공급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SOC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움직임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SOC시설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 점차 환경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SOC시설의 디자인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증

그림 1-4 우리나라의 SOC시설 현황



1 도로건설로 인한 산 사면의 노출



2 육중한 입체교량, 서부간선도로, 안양전철교



3 폐쇄적이고 접근이 어려운 고가도로변 경관



4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난간디자인 (자료: 김남희 제공)

대하고 있다. 이는 개별 SOC시설의 정책방향에도 내포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시설물의 조성에 대한 내용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관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며, 전반적인 SOC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정책방향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SOC시설별 디자인 관련 지침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경관 내지는 디자인심의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제도나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 시설물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고, 상호 이해와 전문인력 부족, 기존 제도와와의 상충 등의 문제로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다. 무엇보다 '좋은 SOC시설'의 조성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규제와 심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3. 국내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SOC시설의 계획 및 조성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각 시설별로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로서 SOC시설의 조성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SOC시설별 개별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은 ① 사회기반시설의 대상에 대한 정의, ② 관련계획 수립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설조성 프로세스, ④ 심의 절차 등이며 『건설기

이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적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수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이 도출되는 방안, 즉 기획단계에서 디자인개념 도입, 민간전문가의 활용, 통합적 설계방안 마련, 주체간 참여확대 등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을 수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사업 단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시각적인 디자인개선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이 SOC시설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간 협업 강화와 기능·기술·디자인의 통합적인 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내 '공공디자인인프라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직 첫 발걸음을 내디딘 단계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SOC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인재양성과 SOC시설의 통합적 설계방안 마련,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과정과 과정별 수행사항을 규정한다. 이외에 타당성 조사, 공사수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과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개별법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SOC시설은 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

하여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각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전담부서에서 관리됨에 따라 공간단위의 통합설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설물별로 산발적이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SOC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개별법과 관련 지침을 조사한 결과 지침의 성격은 ① 설계지침, ② 업무지침, ③ 조성·설치 및 관리지침, ④ 허가에 관한 지침, ⑤ 대책 수립에 관한 지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디자인과 가장 관련이 높은 설계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성, 효율성,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관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의 마련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디자인 관련 지침의 수립여부 및 기준이 상이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담당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상 범위가 개별 시설물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적 경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SOC시설 조성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심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로서, 이는 구조, 토목 등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경관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로는『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가 있다. 이는 기존 자연경관과의 조화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①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②자연경관의 훼손여부, ③경관변화 예측 및 평가, ④경관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하며 주로 자연경관 훼손여부에 치중하여 심의한다. 한편 최근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통된 심의

기준 없이 구조물의 장식적 측면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관심의 또는 디자인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반복되는 심의와 조건부 승인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 예산 낭비의 초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관심의 및 디자인심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이를 위한 전문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 교통시설 조성과정에서 기본설계 이후 진행되는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기능성 위주의 심의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조정 및 경관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추가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디자인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조성이 된 이후 사후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성결과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

대부분 SOC시설의 조성은 각 단계별로 계획과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되기 어렵거나 시행단계에서 계획변경, 예산 증감 등의 사안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디자인 변경이나 이로 인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나 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심의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SOC시설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대형 SOC시설물의 경우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좋은 안을 선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SOC시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개략적인 규모와 배치,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의 디자인과정 없이 바로 실시계획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 시설물별, 지자체별로 경관계획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 디자



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시공비 내에서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초기에 디자인을 위한 기획 자체의 기회가 없는 폐단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상의 문제를 종합해 보면 SOC시설은 각 개별법에 의해 조성·관리되고 있으며, 개별 시설별 지침과 가이드라인 운용에 따른 통합적인 설계가 미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그리고 일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디자인심의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담당업무 부서간 협의 체계가 미비하고 초기 기획단계에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 참여 기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프로세스상 디자인을 고려한 예산을 배정받기 어려운 구조로 SOC시설의 전반적인 디자인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5 일반적인 도로조성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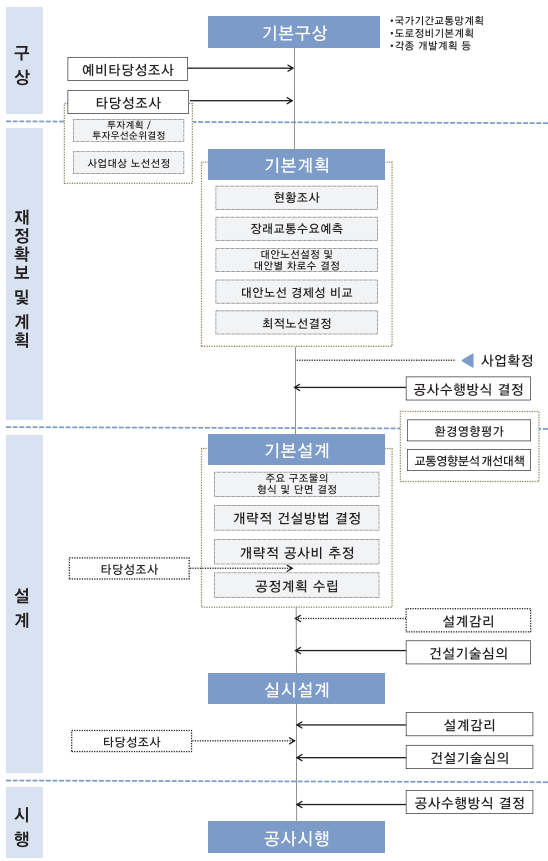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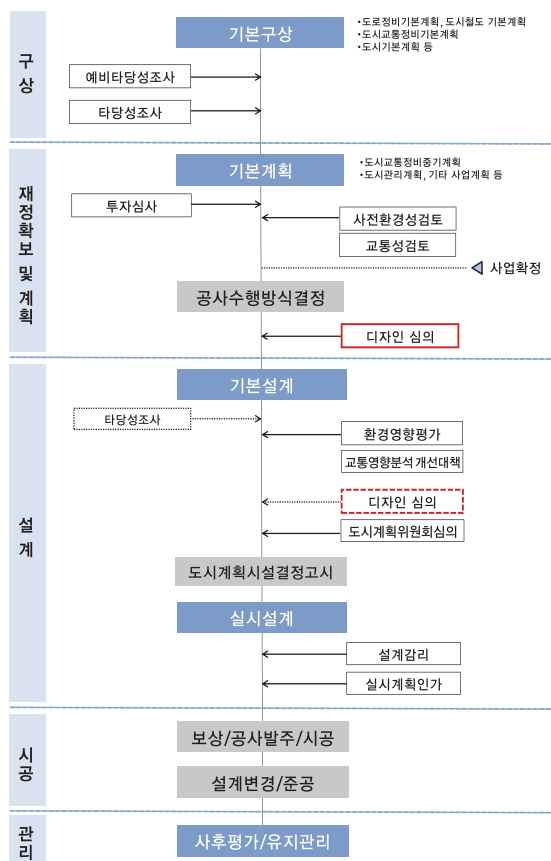


그림6 서울시 도로 조성 사업 프로세스



#### 4. 해외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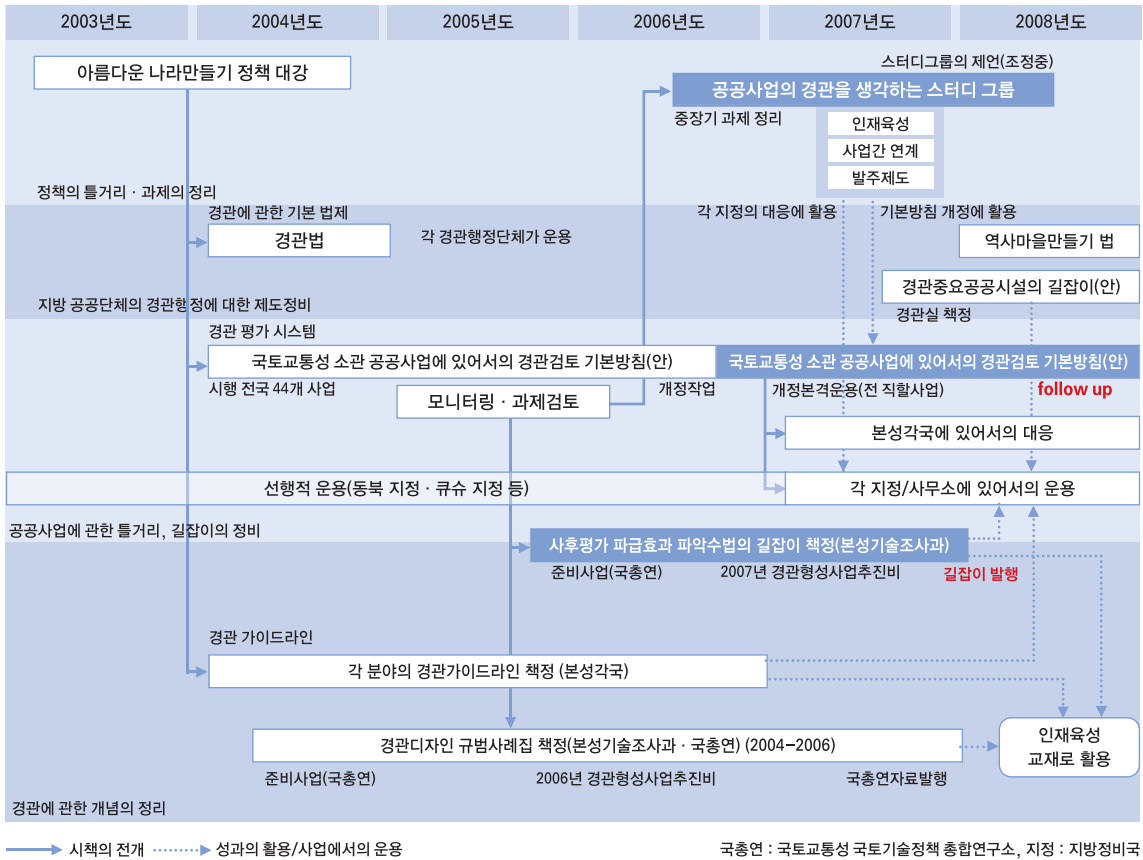
해외 SOC시설의 디자인 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고찰하였는데, 국내의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둘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SOC시설 전문기관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 및 전문가들이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SOC시설 디자인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는 논의조차 없었다가, 2003년부터 이를 위한 정책과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관을 보전하고 창조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이라는 경관시책을 수립하였다. 영국은 2008년에 새롭게 제정된 관련법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2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국가전략계획(NPS)이 수립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수립중이어서 이의 효과나 성과는 살펴볼 수 없었으나, 주요 내용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책방향과 디자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SOC시설의 종합적인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덜란드는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수립을 통해 건축물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정책은 SOC시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제

2차 건축정책부터는 기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SOC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계획은 SOC시설과 경관을 위한 제도, 국가 차원의 방침, 가이드라인, 교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가이드(가이던스)를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는 국가적으로 추진할 중요 프로젝트 대상이나 범위를 정책계획에 담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중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SOC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는 MIQCP에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질 향상을 위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특수구조물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와 가이드를 상세하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의 경우, PPS와 PPG를 운영함으로써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를 대상별로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SOC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도로, 항만 등에 대해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안전성과 기능성을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 보존 및 증진 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SOC시설이 갖추어야 할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질적 향상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차원의 가이던스가 모든 SOC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의 중요 프로젝트들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던스들이 별도로 운영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SOC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점 적용 대상이나 지역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모든

그림7 경관시책의 전체상(직할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시설물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전국에서 양성화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SOC 시설 전문기관과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랑스는 공공건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처간 협력 기관인 MIQCP와 교통 및 도로정비 전문연구기관인 SETRA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방향을 수립하거나 공공발주 관련 지원, 특수구조물 기술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적 연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 가이드라인 수립, 교육과 교류의 장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SOC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의해 건설되는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위원회(IPC)를, 네덜란드는 국가건축가 및 정부자문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SOC시설 국가정책계획을 기반으로 심의, 권고,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SOC시설이나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국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력과 관련하여 일본과 프랑스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전술했듯이,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보다는 토목학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전환과 저변확대를 위한 많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초기부터 좋은 경관·디자인에 대한 규범 제시, 매뉴얼·사례집 출판, 디자인을 평가·비평하는 담론 형성, 타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 등을 실행해왔다. 또한 2002년부터는 시상제도를 통해 SOC시설 설계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앞서 살펴본 전문기관에서 발주처의 인식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실행적 틀에 대한 상세한 차원의 교육적인 책들

을 출판해왔다. 이처럼 좋은 SOC시설에 대한 출판과 교육, 건전한 비평·담론 문화의 형성은 이에 대한 가치인식을 공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에서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정책계획, 제도, 가이드 등을 수립하게 하는 자양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좋은 SOC시설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점들을 생각하고 발주해야 하는지 비평과 담론문화 형성이 저조하고, 사회적 가치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특히나 부족한 우리나라에 이러한 활동과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5.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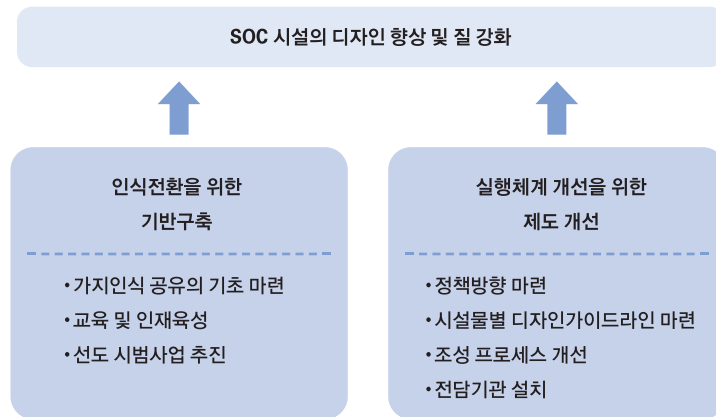
최근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SOC시설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SOC시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SOC시설은 공공공간이나 도로 등 단순히 기능만을 제공하는 요소가 아닌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 결정 요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8 국내외 SOC시설 관련 정책 동향

	1 기능중심 시설확충	2 SOC시설디자인 인식전환	3 시범 적용	4 정책수립 제도화 및 Guideline	5 실행력확보 (전문기관운영)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그림9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국내외 SOC시설의 관련 동향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기능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에 치중했던 첫 번째 단계, SOC시설 디자인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형성의 두 번째 단계, 국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세 번째 단계, 종합적인 틀로서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제도 및 가이드를 운영하는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식전환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앞서 좋은 SOC시설의 가치인식 공유 및 저변확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의 기반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좋은 SOC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실행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OC시설 디자인 관련 국내현황에 대한 조사와 해외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OC시설의

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 2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인식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식전환을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① ‘좋은 SOC시설’에 대한 가치 인식 공유 및 확대를 위한 기초마련, ② 교육 및 인재육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③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① ‘좋은 SOC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 ② SOC시설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③ 통합적인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 구축, ④ 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실행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SOC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시범사업의 수행, 그리고 특수 SOC시설물의 선정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 좋은 SOC시설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와 디자인원칙

‘좋은 SOC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체, SOC 시설 자체에 대한 가치 정립과 더불어 창조활동, 즉 SOC시설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공통의 디자인 원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SOC시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SOC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건축, 도시, 조경, 토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좋은 SOC시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SOC시설의 가치를 묻는 질문이고, SOC시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좋은 SOC시설’이 무엇인지도 답할 수 없다. SOC시설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이다. SOC시설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동시에 어디에서든 마주치는 일상공간이기도 하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SOC시설은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기반시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명의 흔적이다. 이처럼 SOC시설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 당시 사회를 표현하고 대표하는 물리적인 실체이다. SOC시설은 자연과의 관계 측면에서나, 당시 토목기술의 측면에서나 혹은 경관과의 변증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표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SOC시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



기도 하면서 경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SOC시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능적 요구와 SOC시설이 장소와 맺는 연관성에 의한 경관적 측면의 요구와는 일반적으로 상충과 대립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통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기획 단계의 구상부터 설계작업,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디자인프로젝트로서 SOC시설에 대한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게 하는 이유이다.

시대에 따라 SOC시설에 대한 정의와 요구, 그리고 좋은 SOC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대에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좋은 SOC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 내지는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꼽

은 것은 기능성, 경제효율성, 공공성, 친환경성, 심미성, 그리고 맥락성이다. 한편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원칙으로 12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①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② 구조미를 살린 절제된 디자인, ③ SOC시설 본래의 기능을 강조한 디자인, ④ 독창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 ⑤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감성적인 디자인, ⑥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⑦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⑧ 지역의 맥락과 수요를 고려한 디자인, ⑨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 ⑩ 연료사용과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디자인, ⑪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와 협의에 의해 결정된 디자인, ⑫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 결정된 디자인 등이 그것이다.

## 7. 결론

본 연구는 SOC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좋은 SOC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우리가 SOC시설을 다루어 온 방식을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SOC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SOC시설의 가치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첫발을 내 디딘 것에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되는 과제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나,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uribrjef](http://auribrjef).

차주영 9646, cytchah@auri.re.kr

심경미 9654, kmisim@auri.re.kr